

OpenDoors

10

2022

VOL.246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7-2)"

박해와 선교현장

시리아(SYRIA)

현장 레포트

IDP레포트, "난민의 개념과 원인"

현장 스토리

시리아, "희망센터,
희망의 등불이 되다"

Heart To Heart

IDOP 2022, "국제 기도의 날"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집중 기도의 능력

브라더 앤드류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설립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는 어떤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왜 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1950년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살던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세인트 팬크라스에서 기도회로 모였다. 우리는 대단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중보기도자들로써 그날 밤 세계 선교와 선교 사들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기도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콩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라들과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해 주실 것을 구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좋은 냉장고나 좋은 차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영혼과 국가와 같은 큰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날 밤 거대한 결과를 구하는 기도를 담대히 드렸다.

그런데 우리 기도 동아리 중에는 레이나라는 소녀의 친척이 있었다. 레이나의 부모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얼마 전 참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 후, 레이나는 불신자인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소녀의 친척들은 그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를 마친 후 어린 레이나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갑자기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고 그 소녀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간청하고 있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날 밤 내내 느끼던 것과는 다른 감동이 일고 있었으며 우리의 믿음은 배가되었다.

마침내 기도를 끝내고 모두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나는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한 소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는 왜 울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없었지만, 그 소녀와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며 그 모임을 끝내고 나왔다. 그때 우리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세상과 배고픈 자, 압제 받는 자, 현직 선교사,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이 마치 당사자인 양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하나님,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러시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크고 믿음 좋은 기도일지라도 능력이 없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중국의 감옥에 있는 한 선교사, 레바논에서 핍박 받고 있는 한 사람, 콜롬비아에 잡혀 있는 한 인질과 일체감을 느낄 수 없다면, 원하는 만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가 수년을 일했으나 신자 한 명도 얻지 못했을 때 느꼈을 좌절감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당하는 고문과 핍박과 고독과 질병, 또한 사방에서 적대시하는 등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면,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 선교사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라도 열정적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다.

그날 밤 세인트 팬크라스에서의 기도회 이후, 나는 내 기도의 초점이 되는 사람들, 즉 가장 통제가 심하고 위험한 나라에서 고립되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디든 어느 때든 가기로 헌신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러한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 내가 가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보시기에 저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일 텐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커다란 결원 사태가 생겼고,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일 뿐이며, 오픈도어선교회는 한 기관일 뿐이다.

일손이 부족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는 계속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는 예비 인력이 없다.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는 간단한 격려의 말이라도 전하러 갈 사람이 없는 것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몹시 아프다. 나는 "주님, 당신이 이곳으로 가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곤 한다.

그래서 나는 설교의 자질이 없으면서도 설교하고, 작가도 아니면서 글을 쓴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나 당신이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 일이 있고 집에서 맡은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면, 나는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당신을 흔들고 싶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실 수 없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당신 자유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 자녀, 우리 이웃, 우리 상관과 동료, 우리 국가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외딴 곳 잊혀진 마을의 가난한 과부를 알고 그를 위해 중보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은 없다. 예수께서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명하신 일(요 17:9)을 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이다(막 16:15).

그러므로 당신이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저 나라들을 복 주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말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에게로 가라. 그곳의 몇몇 중심 인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구하라. 그들을 사귀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 실제적인 일을 하라. 그곳에 갈 수 없다면, 그들의 문화, 역사, 정치 구조, 지도자 등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라. 그러면 좀더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령게 한다면 당신의 기도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7-2)"
- 08 **박해와 선교현장**
시리아(SYRIA)
- 16 **현장 레포트**
IDP레포트, "난민의 개념과 원인"
- 20 **현장스토리**
시리아, "희망센터, 희망의 등불이 되다"
- 22 **Heart To Heart**
IDOP 2022, "국제 기도의 날"
- 23 **희망의 선물**
-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10월호 | 통권 246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새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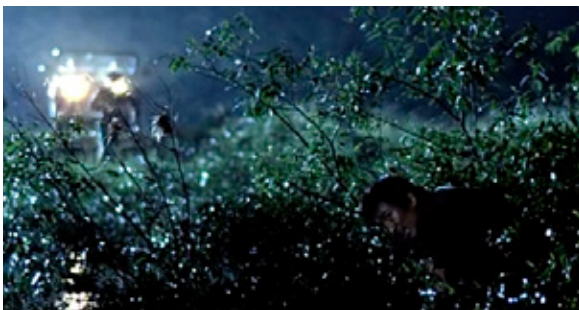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한 탈북 여정의 시작

마리아 자매

그러던 어느 날, 옆동네로 넘어가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시내에서 우연히 명식이를 만났는데 명식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길이 열렸다.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새로웠다. 북한 안에서만 꿈쩍없이 살았으면 내가 힘든 것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살았을 텐데 한번 외국 생활을 맛보고 오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괜히 불쌍하기만 했었다. 답답함과 불합리함에 넋덜머리가 났고, 자유에 대한 갈증이 심하여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예상치 못한 어느 날의 제안은 나를 구해주는 한 가닥의 동아줄 같았다. 내가 선택만 하면 되었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고 작별 인사도 못했지만 이미 내 몸은 명식이를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조금 걸어 나가 명식이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가면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밤 중에 몰래 국경을 넘는 탈북민을 묘사한 장면.
(영화 ‘크로싱’ 중)>

우리는 그대로 반나절을 이동하여 밤이 깊어서야 명식이 장 모님 댁에 도착하였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다시 반나절 정도를 이동하여 다른 여성 브로커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 어두운 밤이 되자 국경 경비대원 한 명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경비대원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갔다. 가을이었지만 꽤 쌀쌀한 날씨였다. 야맹증이 심했던 나는 깜깜한 밤 중에 그 군인 친구 바로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고 명식은 한 5미터 정도 떨어져서 걸었다. 가는 길목에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그 군인 친구가 별안간 멈추어서더니 기다리라고 했다. 국경 연선에서 이쪽 상황은 해결되었으나 저쪽 상황을 살피고 올 모양이었다. 명식이기도 나도 옥수수밭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군인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적막하고도 길게 느껴졌다.

그 때, 갑자기 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서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눈 앞이 하얘지고 머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졌다. 명식은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손살같이 도망갔으나 나는 온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찰나의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뛰어도 어느 쪽으로 뛰어야 하는가? 여기까지 와서 왔던 길을 되짚어간다면 한들 중간에 걸릴 것이 뻔하였다. 그렇다고 경비가 더욱 삼엄한 국경 쪽으로 뛸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내 앞에 섰던 사람을 자세히 보니 다행히도 군인이 아니었다. 누구인지 묻자 이 옥수수 농장의 벼



분조장이라고 했다. 분조장이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지위가 꽤 높은 축에 속한 민간인이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탈북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터전이라 나 같은 사람을 잡는 것은 그 사람에겐 별일도 아닌 듯 보였다. 좀 전부터 우리를 발견했지만 일부러 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가 군인이 사라지자 다가온 눈치였다. 분조장은 나보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했다. 보안서로 끌고 가는 것이 뻔하였다.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별다른 뾰족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있으면 전방을 보러 갔던 군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그가 나를 빼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아무개 집에 일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다. 분조장은 얼른 따라오지 않으면 군인들을 부르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와중에 전방을 살피러 간 군인 청년이 돌아왔다. 청년은 우리 둘을 보자마자 시치미를 떼며 “이 밤에 이 여인네는 왜 여기에 있는가”하고 물으며 “우리 강내 온 사람이니까 내가 데려간다”고 내 팔을 채갔다. 그러나 분조장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 뭐야, 내 손님이야”라며 군인 청년에게 엄포를 놓았고 경험도 나이도 많지 않아 보였던 그 군인 경비대원 청년은 그 기세에 밀려 그대로 돌아갔다.

절망적이었다. 분조장은 “보안서 사무실에 가자”라며 나를 이끌었다. 설마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머리가 새하얗게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텅텅텅 걷는 와중에 어떤 아주마가 다가왔다. 아닌 게 아니라 명식이와 군인 청년 사이를 놓아준 아주마였다. 군인 청년이 자리를 뜨면서 그 아주마에게 연락했고, 그 여성 브로커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이다. 다행히도 그 아주마는 나를 잡아가던 분조장과 각별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이 여자가 나를 보면서 “아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여기 있나”라면서 능청을 떨었고, 분조장은 그 말

을 듣고는 “아무개 엄마, 지금 남편도 단련대 가 있는데 이런 장난을 자꾸 하면 되겠나”면서 못마땅한 눈치로 나를 풀어주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나와 분조장은 그 아주마를 따라가게 되었다.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둘 모르게 얼른 집 뒤쪽으로 숨어들어갔다. 그 곳에 명식이가 있었다. 아까 분조장에게 걸렸을 때 냅다 뛰어 이 곳으로 먼저 들어왔던 것이었다. 명식이를 따라 그 집 뒷문으로 걸어 나와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머니 동생 집으로 갔다. 그 곳은 나처럼 탈북을 하러 오는 사람이 거쳐가는 곳이었다. 몰래 빠져나왔으니 일단 위기는 모면한 셈이었다.

명식이는 그 집 부엌에 차려져 있는 삶은 계란을 먹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와서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내뱉다. 나는 그런 명식이를 보며 차라리 너가 입은 바지와 내가 입은 치마를 바꿔 입자며, 무슨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많냐고 호통을 쳤다. 웬지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 오기가 생겨 단호해지고 비장해졌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죽어도 이 길은 포기 못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다.

명식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둘 다 깜빡 잠이 들었다. 단잠을 자고 있던 깊은 새벽 어느 때에 아까 그 군인 청년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빨리 건너자” 그 한 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길을 또 나섰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여 따라 나섰다.

밤이 깊어지자 점점 추워졌다. 거의 초겨울 날씨였다. 새벽 이슬이 맺혀 걸음마다 낮은 소리로 자박자박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는데도 긴장이 심하여 정말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군인은 우리를 철조망으로 인도한 뒤 망가진 철조망 사이를 들어올려 우리를 내보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북한 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는 마침내 출애굽을 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중국이 압록강 일대 북한 접경 전역에 설치한 견고한 이중 철조망 (RFA)>

시리아 (Syria)



폭력과 압력의 수준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신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공격을 당하고, 납치나 살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교회들은 이슬람 단체 및 기타 폭력적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의해 철거되거나 이슬람 센터로 바뀌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 역시 교황이나 주교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강한 지도자의 영향권 밖에 있고 서구 지향적이고 전도 중심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취약하다.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가 적었다. 정부가 권력을 되찾으

면서 반체제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했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대체로 정부에 의해 용인된다. 무슬림이나 드루즈족(Druze: 아랍어를 쓰며 시리아, 레바논에 거주하는 이슬람교 소수 분파 민족) 출신 기독교인들은 개종으로 인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큰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박해는 특히 수니파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더욱 심하다. 수니파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들에게 추방당하거나 공격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019년 10월, 터키의 시리아 침공 이후, 터키군은 쿠르드족과

기타 소수민족, 기독교인과 야지디족(Yazidis: 쿠르드족 이면서 야지디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들을 공격하고, 강간, 납치 및 살해하였다. 터키군은 또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계 수니파 국내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oples)들을 북부지역의 소수민족 난민촌으로 이주시키면서 인구 통계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인구: 19,586,000 명

기독교인 수: 638,000 명 (3.3%)

주요종교: 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Presidential Republic)

주 박해 요인:

이슬람의 탄압, 독재정권, 혈족에 의한 탄압, 조직적 범죄와 부패,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시리아의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38,000	0.4
무슬림	18,552,000	94.7
무신론자	15,700	0.1
불가지론자	378,000	1.9

시리아는 독재정권으로 분류된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2000년에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았다. 시리아 반군은 점점 더 '이슬람화'되었고 내전 양상은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수니파 '지하드'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정부는 군사력에 의존하였지만, 무장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쟁은 2014년 6월 이슬람 칼리프국을 세운 IS(Islamic State)를 포함한 해외 지하디스트 군인들의 참전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과 2017년 IS는 서방국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다.

현재는 이들리브(Idlib: 시리아 북서부 도시) 지역, 서부 알레포(Aleppo: 시리아 북부 도시) 지역, 북부 하마(Hama: 시

리아 중부 도시로, 다마스쿠스 북쪽에 위치) 지역과 시리아 동북지역을 제외한 시리아 영토의 대부분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터키군, 글로벌 연대(The Global Coalition), 이슬람 단체 또는 쿠르드 당국이 장악하고 있다. 2019년 2월, 지하디스트들이 이들리브(Idlib)지역을 장악했다. IS는 동북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이어갔다. 2019년 10월, 터키 주도의 시리아 북부지역 침공으로 인해 160명의 기독교 가정이 실향민이 되었다. 2020년 3월, 러시아와 터키가 휴전협정을 맺었다. 비록 4월에 러시아의 공습과 지하디스트의 공격으로 서북지역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휴전협정으로 이들리브 도시를 향한 정부의 군사행동이 중단되었다. 2020년 7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회 총선에서 승리했다. 알-아사드는 또한 2021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었다.

시리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 전체 인구의 74%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13%는 알라위족(Alawi), 이스말리족(Ismali)과 시아파 무슬림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무슬림이어야 하고 이슬람법이 입법의 주요 근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국가 종교가 없다고 말한다. 기독교인들의 포교활동이나 개종 권유 활동은 제한을 받지만,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 내에서는 합리적인 대우를 받는다. 기독교인들이 친-정부적이라는 인식이 관대한 대우로 이어진 것이다. 반-정부세력이 통제하는 지역 내의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시리아 북부지역에서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합리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받고 있다.

시리아 동북지역 자치행정구(AANES: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 and East Syria)에서는, 무슬림들이 신앙을 바꾸고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리아인 80%는 국제 빈곤 기준선보다 심한 빈곤을 겪고 있고 15세 이상 인구 기준 실업률은 62.2%에 달한다. 약 670만 명의 시리아 국민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어린 아이들이다. 코로나19 위기로 대략 1,34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시리아는 디지털과 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세계에서 세번째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 올라 있다. IS가 군사적으로 패배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앙 사막 지역에서의 극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서남지역과 동북지역에서도 쿠르드족과 정부연맹군 사이 뿐 아니라 정부군과 이전 반군 세력들 사이에도 충돌들이 발생한다. 기독교인들은 정부군과 반군세력 사이에도 고착되어 집중 포화를 당하는 상황이다. 이дли브 지역에서는 터키의 지원을 받는 다른 지하디스트 분파들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박해 상황

동북지역의 하사카(Hasakah) 지방과 서북 지역의 이дли브(Idlib) 지방에서는 이슬람 급진주의 집단들의 통치를 위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IS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일삼는다. 터키군과 이슬람 무장세력을 포함하는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TSO(Turkey-Supported Opposition)가 시리아의 북쪽 지역을 지나 하사카(Hasakah)와 카미쉬리(Qamishli)까지 공개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

(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

이들은 대부분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공동체

이다. 시리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유형인 역사적 전통이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은 특별히 반정부 세력들에게 더욱 공격 대상이 된다. 이들 공동체는 시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분쟁 지역 내에도 존재한다. 극소수의 전통 기독교 가정들이 이дли브 지방에 남아있지만 국제 지하디스트 조직들의 통제 아래 있고, 살해와 폭행, 고문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숨기고 있다. 터키와 TSO의 공격때문에 시리아 북부, 북서부, 동북부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의 성직자들은 성직복 때문에 쉽게 노출되고, 이 때문에 종종 공격 대상이 된다. 교단과 교회 및 지역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장(아사드 정권에 대한 중립, 친정부 혹은 반정부의 입장)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들로부터 받게 되는 박해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기독교 개종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무슬림이나 드루즈(Druze)족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특히 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종교를 떠나는 것은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니파가 지배적인 지역의 개종자들은 가족에게서 버림받거나 더 심한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 급진적 이슬람이 증가함에 따라 무슬림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을 향한 가족과 사회의 억압은 반군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더 증가해왔다. 쿠르드족 수니파들은 보통 덜 급진적이기 때문에 쿠르드족 지역에서는 가족들의 박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단, 부족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슬람이 더 보수적인 사막지역들은 예외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Non-traditional Christian communities)

침례교,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회 공동체는 알려진 것처럼 서구적 개인주의 성향과 강력한 리더십의 부족, 교황이나 주교/감독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해외의 목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대부분의 비전통적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은 법적 지위나 교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전도/포교 활동들로 인해,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원하는 시리아 정부에게도 박해의 대상이 된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압박:

내전 이전,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종교적 자유를 누렸지만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상

황이 바뀌었다. IS는 2014년 6월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 칼리프 체제 국가를 수립했다. 시리아-이라크 지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땅을 떠났다. 칼리프는 2019년 3월 제거되었지만 IS는 여전히 교묘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고, 다른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들(Hayat Tahrir al Sham and Jaish al-Islam) 또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은 현재 시리아 인구의 약 15%를 통제하고 있다. 터키군은 2016년에 시작한 군사작전을 통해 시리아 북부지역 영토를 차지하였고, 2019년 10월 이후, 시리아-터키 국경 지역은 소위 '안전지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터키는 쿠르드족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아랍 이슬람 무장세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슬람에 의한 탄압은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나타나며, 대부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특히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의 압박을 겪는다. 예를 들면, 2019년 라마단 기간 동안 알레포(Aleppo)의 기독교 지역에서 기독교 여성들도 천으로 몸을 가리라고 촉구하는 포스터가 붙었다.

독재정권:

독재정권의 압력은 주로 터키가 지원하는 반대세력(TSO)을 포함한 시리아 일부를 통제하는 무장단체들로부터 시작된다. 터키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은 이러한 통제를 통해, 과거 오스만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한다. 2019년 10월 이후, TSO는 쿠르드족과 하사케(Hassakeh)에 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백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변 시골 지역에 수차례 물 공급을 차단하며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했다. 무장단체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소유 재산을 몰수했다. 시리아 정부의 아사드 대통령은 역사적 전통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는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사회적 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도/포교 활동을 통해 현재의 상태 유지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집단들)을 반대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교회활동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와 고문에 대한 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혈족에 의한 탄압:

시리아의 부족주의는 북부 쿠르드 지역과 중앙사막 지역에서 특히 이슬람과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겨진다. 기독교 개종이 드러날 경우, 가족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부족의 최고 원로

샤이크(Sheikh)는 개종자의 처형을 허용할 수 있고 무슬림이 개종자들의 재산, 소유, 심지어 여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직적 범죄와 부패:

시리아 사회는 부정부패와 뇌물수수가 만연하다.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시리아를 가장 부패한 국가 3위로 선정했다.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채 무질서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식량보급과 공중보건 서비스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부유하기로 소문난 기독교인들은 몸값을 얻어 내려는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되고 있다. 조직적 범죄와 부패는 특히 터키군과 이슬람무장단체가 점령한 지역, 시리아 서부 지역과 드루즈족(Druze)이 지배하는 지역, 알라위파(Alawites)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만연하게 발생한다. 알라위파가 지배하는 라타키아(Latakia) 지역에서 젊은 기독교인의 납치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범죄와 부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몇몇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도자들은 비-전통적인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거부한다. 비-전통적인 교회 공동체들이 서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아젠다와 결탁하여 나라를 배신했다고 비난한다. 이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주의교회들을 이단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2020년,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카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모든 복음주의자(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들이 교회 시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성과 여성 박해의 차이

여성

지속되는 불안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종교 공동체의 여성들은 납치, 성적학대, 성폭행의 위험을 감수한다. IS가 시리아 지역을 장악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러한 여성 박해 사례의 발생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성을 향한 이러한 박해들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은 물론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다. 성폭행은 기독교 가정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교회 공동체에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성 개종자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여성들은 개종했다는 이유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거나 무슬림에게 강제 결혼을 당

하기도 하며, 가족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다.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자격 박탈
- 직장/구직/사업 영역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적 복장 착용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사망에 이르는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남성

병역 거부자로서, 이로 인해 이민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기독교인 남성들을 향한 폭력은 남성들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치는데, 특히 남성들이 살해되거나 납치, 또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시리아 사회 내에서 가족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남성이 위협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취약해질 수 있다. 개종한 남성들은 더 많은 박해에 직면하고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며 유산 상속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대체로 남성인 교회 지도자들이 당하는 납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 납치
- 상속 또는 재산 소유권 박탈
- 직장/구직/사업 영역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군대/민병대 강제 징집 및 양심에 반하는 강제 복무
- 사망에 이르는 폭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15	77.58
2021	12	81.18
2020	11	81.60
2019	11	81.79
2018	15	75.67

시리아는 WWL 2022에서 박해지수 77.58포인트로 15위를 기록했다. 2021년보다 순위가 3계단 내려갔다. 박해 수준은 대체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폭력박해 지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보고된 폭력사건의 수는 전년도보다 더 적었다. 예를 들어, WWL 2021에서는 기독교인 사망자 수가 9명이었지만, WWL 2022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WWL 2022에서는 강제결혼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WWL 2022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반면, 교회와 기독교 공동묘지에 대한 공격 건수와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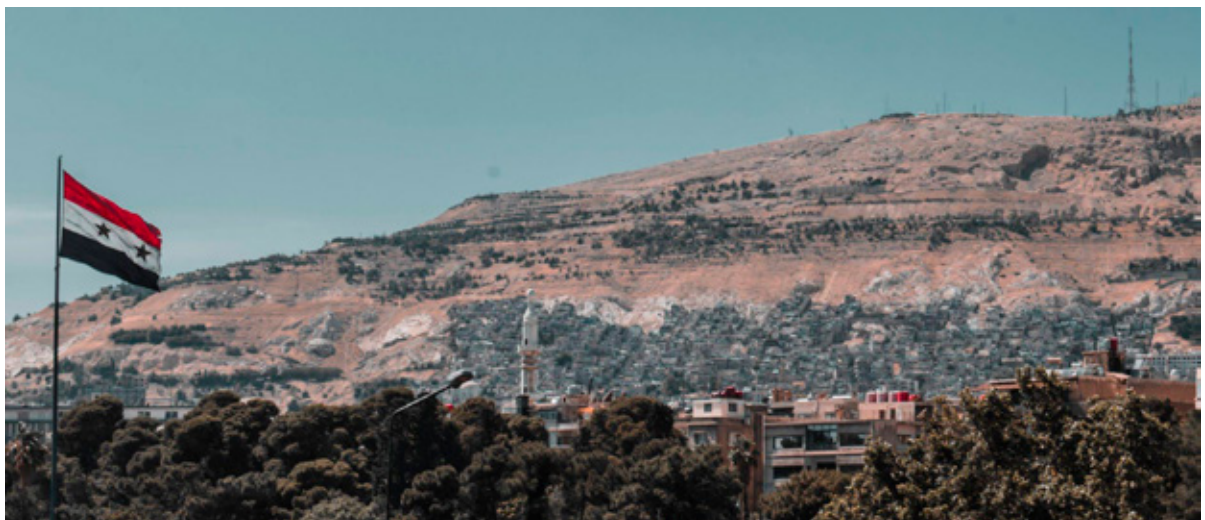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의 사례들

공격받거나 손상된 교회와 기독교 공동 묘지

- 2020년 10월 30일,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라카(Raqqqa)지역 인근 그리스정교회 건물 지붕 위의 십자가를 제거했다.
- 2021년 5월, 이슬람 민병대가 시리아 서북지역과 중부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공동 묘지 4곳을 파괴했다.

체포된 기독교인

-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에서 개종한 4명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6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다른 기독교인 3명은 인민보호수호대(YPG: Yekineyen Parastina Gel / People's Protection Units)가 주류를 이루는 시리아민주군(SDF: Syrian Democratic Forces)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중 2명은 기독교 정통 시리아 신경 공의회(Christian Orthodox Syrian Creed Council)의 회원으로, 시리아민주군(SDF)이 통제하는 지역 내 의회 부속 학교

에서 SDF가 지정한 필수 교육 과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다음 날 풀려났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동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독교인들의 반복적인 구금 사건은 기독교 공동체에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WL 년도	사망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건물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수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
2022	10	6	10	100
2021	5	3	10	480

위 표는 월드와치리스트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사안 중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일부 범주만 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 (년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이슬람 반군이 장악한 이дли브 지방과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형을 처벌을 받는다. 쿠르드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 내에서, 무슬림은 법적으로 개종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신앙에 대한 토론은 개종자들에게 위험하며, 개종이나 포교를 시도했다고 간주될 수 있다. (개종 및 포교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정치적 견해를 언급하지 않는 한 자신의 믿음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무슬림들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금지되어 있다. (시리아 동북지역 자치행정구들 제외, AANES: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 and East Syria)

가정 영역

시리아에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 여성이 역사적 또는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혼은 불법이다. 종교간 결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며, 가족 구성원에 의한 따돌림, 차별과 박해, 심한 경우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리아에서는 무슬림 남성의 딸이나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경우, 무슬림 남성의 명예는 훼손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문화와 종교 모두 개종한 딸이나 아내를 살해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이혼이 더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해결책이다. 무슬림 배우자가 기독교인과 이혼하게 될 경우, 자녀 양육권은 대체로 무슬림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일부 기독교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이다. 하지만 시리아 동북지역 자치행정구(AANES: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 and East Syria)는 예외이다. 무슬림으로서 자신의 종교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리아 내의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집권하는 지역 내의 이슬람 교육이 증가한 결과, 기독교인 어린이들, 특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다.

공동체 영역

시리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감시를 당한다. 특히 이슬람 반군세력들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더욱 심하다.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들과 비-전통적 교회 공동체들은 더욱 세밀하게 감시당하며 설교 내용마저 감시를 받는다. 학교에서도 종교 지침이 전달된다. 개종자들은 여전히 무슬림으로 여겨지고 자녀들 또한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고용/구직에 있어서도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수니파 무슬림들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알레포(Aleppo)의 기독교인들은 차별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 영역

교회의 예배는 내전의 위기가 시작된 후로 줄곧 감시되어 왔고 정부는 교회 성도들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 내전이 벌어지지 전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무슬림들을 전도하거나 이슬람에 대해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되도록 피해왔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통제하는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거되었거나 이슬람 센터로 사용된다.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교회 공동체 내의 기독교 개종자들의 연대는 정부에 의해 항상 해산되었다. 종교적 계파주의가 우려되고 종교 공동체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슬람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교회 건물이 훼손되었는데 특히 십자가 철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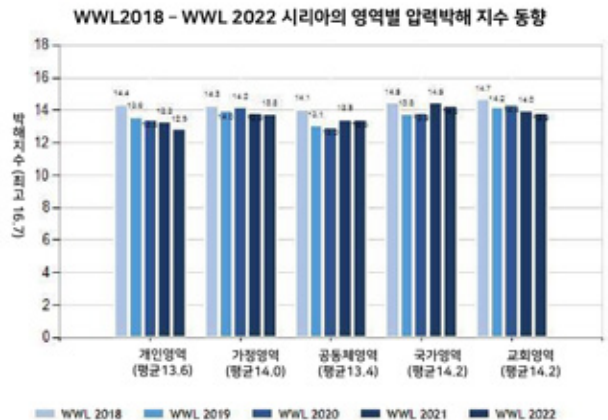
※ 5년간 평균 박해지수 동향

시리아 연도별 폭력 박해 지수 동향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 (16.7/만점)
2022	13.7
2021	13.8
2020	13.8
2019	13.8
2018	14.4

위의 표는 지난 5년 중 처음 4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전반적인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준다. 최대 하락 폭이 0.7포인트에 머무르면서 2022년 평균 박해지수가 '매우 높음'과 '극심함'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었다.



※ 5년간 영역별 압력박해 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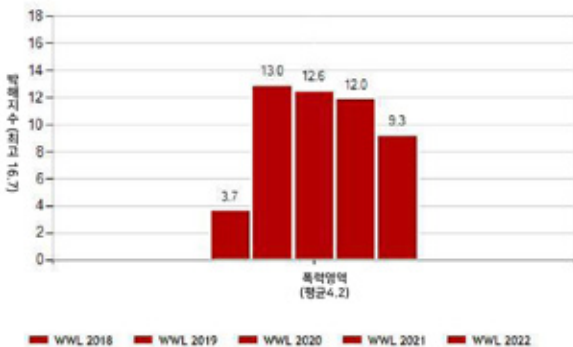


공동체영역과 국가 영역에서는 비교적 덜하기는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들의 박해 동향은 처음 몇 년 간의 더 높은 수준에 비해 박해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감소는 IS가 장악한 지역과 다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장악한 지역이 축소되고 시리아 동북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상황의 진행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박해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국가, 교회, 가족 영역의 박해 수준은 여전히 극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5년간 폭력박해 지수 동향

2018년 WWL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지수는 3.7포인트였다. 이는 IS가 지배하는 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폭력 사례 보고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내전의 혼란 속에서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특별히 더욱 어렵다. WWL 2018이 발표된 이후에, IS가 2017년 10월에 기독교 도시인 알 카랏타인(Al-Qaryatayn)에서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살해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반영되었다면 더 높은 폭력 지수로 이어졌을 것이다(The Independent, 2017년 10월 23일).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폭력 박해가 극심함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이슬람 무장세력, 터키군과 터키군의 지원을 받는 TSO(Turkey Supported Oppositions)에 의해 자행된 살인을 포함한 폭력행위와 다수의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서북, 동북지역을 포함한 시리아 북부지역에서의 재산 몰수 사건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WWL 2022의 폭력 지수는 이전보다 더 낮았지만, 특히 TSO의 폭력적 활동들로 인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WWL2018 - WWL 2022 쿠바의 폭력박해 지수 동향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시아파(Shia) 무슬림, 알레위족(Alewite), 드루즈족(Druze), 유대인, 야지디족(Yazidis), 자라다슈티족(Zaradashtis) 공동체를 포함한 많은 소수 종교 공동체가 다양한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 시아파 무슬림, 알레위족, 드루즈족 공동체는 수니파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왔다. 이슬람 내에서 이들의 신앙은 이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레위족의 경우는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

야지디족과 자라다슈티족은 시리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쿠르드족 종교에 속한다. 쿠르드족의 자녀들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등록되고 학교에서 이슬람을 배운다.

시리아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는 시리아 지역교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를 위한 많은 사역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시리아 지역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 지역 교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 성경 및 신앙 관련 자료 배포: 성경, 성경공부 교재, 어린이성경, 신약과 기독교 서적
-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리더십 교육
- 장기적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 시행
- 시리아 내 여러 지역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매우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 및 디브리핑 진행
-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구호 지원 및 많은 시리아 기독교 실향민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 모든 교단이 초청되는 컨퍼런스를 후원하여 다양한 기독교 교단 사이의 가교 역할 감당

오픈도어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리아의 전반적인 상황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IDP레포트, “난민의 개념과 원인”

IDP의 3가지 개념

난민(Refugee)이란?

“자신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단체의 구성원이나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

※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참조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내 실향민 모니터링 센터(IDMC)의 분석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76개 국가들과 국내 실향민/국외난민들의 출신국가 및 난민 수용국가가 대부분 동일하게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실향민의 46%가 다음 표의 5개국 출신이다. (분쟁과 폭력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국내 실향민을 말한다.):

국가	난민 수 (만명)	WWL2022 순위
시리아	670	15
아프가니스탄	570	1
DR콩고	550	40
콜롬비아	520	30
예멘	430	5

난민의 68%는 다음 표의 5개국 출신이다:

국가	난민 수 (만명)	WWL2022 순위
시리아	680	15
베네수엘라	410	65
아프가니스탄	260	1
남수단	220	74
미얀마	110	12

난민의 39%가 다음 표의 5개국 난민 캠프에 수용되어 있다.

국가	난민 수 (만명)	WWL2022 순위
터키	370	42
콜롬비아	170	30
우간다	150	69
파키스탄	140	8
독일	120	-

국내 실향민(IDP: An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란?

“보편화된 폭력의 상황, 인권이 유린된 상황, 자연재해나 재앙, 인위적 무력 충돌이나 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러한 충돌의 결과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나 장소, 지역을 떠나도록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당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나 집단.”

※ 1998년 유엔 국내 실향민 지침(1998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올라(Yola)지역의 나이지리아 IDP(국내실향민)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주민(Migrant)이란?

“국제법상 정의되지 않은 포괄적 개념으로, 국내나 국외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통상적인 거주지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이주민’라는 용어에 대해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난민과 이주민의 개념을 바꾸면 다른 집단들의 어려움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난민/실향/이주의 요인들

난민/실향/이주가 일어나는 임계점

종교적 박해 자체나 여러가지 압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박해는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하는 임계점으로 한 사람을 몰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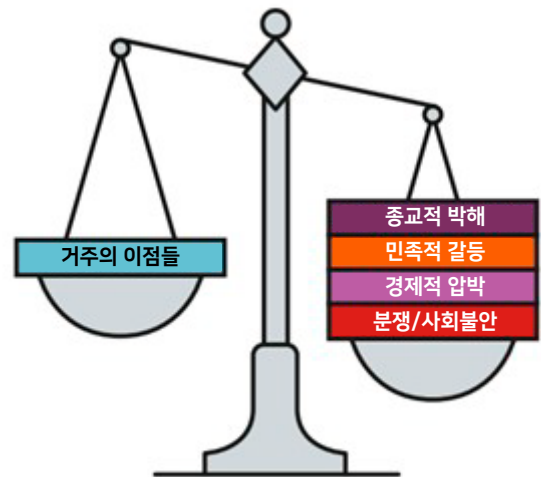
대부분의 기독교인 난민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종교적 박해만이 아니다. 민족적 갈등, 재난, 경제적 압박과 분쟁, 불안의 다양한 형태들이 결합되어 여러 층위의 압력을 가하여 의사결정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난민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압박은 몇 년에 걸쳐 축적될 수 있다. 이민과 난민 문제를 조사하는 국제소수자권리단체(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는 보고를 통해 “폭력이나 분쟁이 대량 난민/실향/이주 사태를 촉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배제의 과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난민/실향/이주의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난민/실향/이주가 발생한 것을 종교적 정체성과 활동에 의한 결과로 구분해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종교적 실천/행동에 대해 어떤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며, 어느 정도의 압박이 박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성과 현재까지의 연구 부족을 의식하면서, 다음의 예비 연구 결과는 종교적 정체성이 어떻게 한 개인의 도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가 난민/실향/이주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 도피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이유들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술적 연구들은 망명 요청을 다루는 국가의 맥락에서 종교에 기초한 망명 요청 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종교자유위원회(USCIR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최근 출판물은 다양한 국가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도피하게 만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박해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도피하는 이유?

IDP연구는 종교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살던 곳에서 떠나게 만드는 분명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박해의 성격과 요소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세계적 범위에서 기독교인들의 난민/실향/이주를 주도하는 주요 박해자 그룹 4가지는 아래와 같다.

난민/실향/이주를 일으키는 4가지 박해자 그룹

가족(직계가족과 친인척)

정부관료(지역 및 국가 정부)

국민과 지역사회공동체(폭도 포함)

폭력적 종교 단체

이라크: 무너진 교회의 수십년의 시간...

난민/실향/이주는 다음세대들에게 한 나라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추정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 내 이라크인 기독교인의 수는 16만 6천명에 불과하다.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이라크 내 기독교인은 백만명이 넘었으나, 후세인의 집권 기간 동안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해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땅을 떠나야한다고 선언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떠나고 있고, 사람들이 떠났다는 사실은 대체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 매일 매일 사람들은 마을을 조용히 떠나고 있다.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짐을 싸고 삶의 모든 터전들을 남겨둔 채 떠나간다. 가끔 이 곳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깜짝 놀랐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에게는 이민을 나온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다.”

2019년 아시리안 정책 검토 보고서에 실린 인터뷰 내용

기독교인들을 이라크 땅에서 몰아내려는 ISIS의 노골적이고 전략적인 시도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재산을 챙겨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기독교인들이 버리고 간 집들은 곧 ISIS에 의해 몰수되고 점령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라크를 떠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로 피신하였고, 안전한 지역에서는 국내실향민(IDP: Internal Displacement People) 캠프들이 세워졌다. 난민 수용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우선 선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정착한 국가 내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은 대체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에 다시 정착하거나, 자신을 받아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삶을 이어갔다.

난민/실향민/이주민이 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보도된 예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라크 IDP 캠프와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예배 처소를 찾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종교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착취, 언어폭력 과 차별에 취약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도록 압박을 받은 것



<테레즈(Tereze)는 부모님이 ISIS에게서 탈출한 뒤 이라크의 카람레스(Karamles)의 IDP 캠프에서 태어났다. 그 뒤 테레즈의 가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

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은 착취적인 고용주와 건물주 모두로부터 성폭행 당할 위험이 높았다. 안타깝게도, 성적인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IDP 캠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 이라크에서 미국이 ISIS를 격퇴시켰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다음 3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 안전성의 결핍: 오픈도어의 이라크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 분위기에 공포심을 느낀다. 이들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검문소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한다. “어떤 목회자는 검문소를 통과하고 그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십자가 목걸이를 비롯해 성직복을 벗어야 했다”고 현지 전문가는 전했다. 기독교 가정에 대한 이라크 국내 경비대의 공격을 비롯해 터키 군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터키의 폭탄테러 공격은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현지 전문가는 ‘반기독교적 동기와 사상’에 의해 테러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 USCIRF(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2022년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의 공격 재개 또한 종교적/민족적 소수민족들 사이에 새로운 공포심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개종으로 인한 가족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대부분 이라크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겪는 박해의 가장 큰 이유인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박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라크의 20세 쿠르드족 소녀는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발각되자마자 독실한 무슬림 가족들에게 보복 공격을 당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뒤, 터키에 있는 그녀의 삼촌에게 ‘와서 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녀는 삼촌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탈출했고 현재는 도피생활 중에 있다.

2) 회복 가능성의 부족: IDP보고에 따르면, 줄어든 사회 서비스와 교육기회 부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떠나기 전 살았던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분쟁 기간 동안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분쟁 전 부동산(거주지)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다.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은 경제 활동 기회를 얻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많은 청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찾아 유럽으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지역 공동체의 영구적 분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삶은 지역 사회 적응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 2014년, 대규모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나면서, 고향을 떠난 기독교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무슬림 이웃들과 돌아온 기독교인들 사이에 긴장감에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과 이라크를 떠났다가 돌아온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존재한다. 이라크 현지 전문가는 “떠나지 말고 끝까지 버티거나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설명한다.

이라크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이라크 교회는 심하게 분열되었고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비록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지만, 그 땅의 다른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길 바라고 있다. 돌아온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남든 떠나든,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든 남든,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이라크 기독교인들 각자는 중대한 현실적 문제 앞에 서 있다. 이들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라크 아르빌(Erbil)의 세인트 엘리야 교회 앞 마당에 위치한 난민 캠프 모습>

BEACON OF HOPE

희망센터, 희망의 등불이 되다

페리얼(Ferial)이 시리아의 오픈도어 희망센터(Open Doors Centre of Hope)를 방문한 뒤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시리아-이라크의 모든 교회를 희망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중동의 교회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후원은 중동에 희망을 살려주었습니다. 전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후원, 지지와 격려가 넘치게 일어나면서 중동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이라크 성도들은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여전히 중동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났으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또한 희망을 잃고 시리아 땅을 떠나면서 교회 역시 IS의 손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이자, 시리아 연합교회 담임 목회자인 에드워드(Edward)* 목사는 “교회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60%를 잃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중동 지역 책임자 토마스 아담(Thomas Adam, 가명)*은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토마스의 질문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희망. 시리아-이라크의 교회와 사회는 지금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날의 만남은 중동 지역에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백만 개의 기도의 소리를 일으키는 글로벌 캠페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픈도어는 전세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리아-이라크의 교회들이 처절한 절망의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 아이의 엄마인 52세의 페리얼(Ferial)*은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될 당시 알레포(Aleppo)지역에 살았습니다. 포탄이 그녀의 집을 덮쳤고, 무장 군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그녀의 가족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3개월 동안 페리얼과 아이들은 물도 없이 살아 남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라타키아(Latakia)지역으로 옮겼지만,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늘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느날 페리얼이 나사렛 교회에 있는 오픈도어 희망센터를 방문하면서 비로소 그녀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센터의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저희 가족들을 지원해주었고 자신들의 품에 진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은 저희 가족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연약한 교회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페리얼은 오늘도 희망을 갖습니다. 2015년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 문을 연 286개의 희망센터들은 영적/현실적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시리아-이라크에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열매는 교회가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의 등불처럼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 우리 교회의 한 가정의 떠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중동의 교회가 IS의 폭압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일상은 전기, 의료, 식량은 물론 일자리마저 부족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역의 크리스천들은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달 더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땅을 떠나고 있고, 희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에드워드(Edward)*목사는 다음과 같이 시리아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리아의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저희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에드워드 목사는 다마스쿠스에서 십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센터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빛’이라고 불리는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매월 약 1,500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에드워드 목사님은 다마스쿠스에서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저희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심어주세요

오픈도어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의 모든 지역 교회를 희망센터로 만드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센터는 기도, 상담, 성경교육, 소득창출 프로젝트, 생계유지사업을 위한 소액대출, 의료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센터들을 통해 크리스천과 무슬림 모두 동등하게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움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을 밝히는 희망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희망은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견뎌낸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시리아-이라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희망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심어야만 합니다."

오픈도어 중동 지역 책임자 토마스 아담(Thomas Adam)*은 전합니다. “중동의 교회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있으며,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희망센터의 수가 늘어나면, 중동에 남겨진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심어야만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희망센터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페리얼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중동의 희망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PRAY NOW 지금 기도해 주세요.

-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 시리아에 있는 페리얼 자매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시리아 교회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욱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희망센터 영상 바로가기>



<페리얼 영상 바로가기>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희망의 백만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동참하기: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접속
 - 기도의 불 밝히기 동참하기 사이트 [www.makehopelast.org] 바로가기



<캠페인 안내 바로가기>



<기도의 불 밝히기 사이트 바로가기>

- 2022년 11월 6일 국제 기도의 날에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PLEASE GIVE 후원해 주세요.

- 5만원으로, 이번 겨울 시리아 기독교인 한 명에게 식량, 겨울 옷, 침구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만원으로, 취약한 기독교인 2명에게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9만원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1명에게 트라우마 치료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Heart To Heart

H4ME7-MAKE HOPE LAST: One Million Prayers of Hope

시리아와 이라크를 위한 백만기도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기도꾸러미를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 40일 기도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IDOP2022: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persecuted Christians

MAKE HOPE LAST

2022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
[2022년 11월 6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